

‘탕자의 가장 되기’로 본 국문장편소설 속 ‘어른됨’*

- <쌍천기봉> 연작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김강은**

<차례>

1. 들어가며
2. ‘탕자의 가장 되기’의 양상
3. ‘어른 되기’ 서사와 어른됨의 의미
4.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국문장편소설 <쌍천기봉> 연작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어른 되기의 과정과 어른됨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몽창이 타고난 방탕함을 제어하고 가장이 되는 서사는, 곧 자신이 가진 기질을 조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쌍천기봉> 연작에서 이몽창의 ‘어른 되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으로 판단 기준의 정립과 사회적 역할의 체득을 들 수 있다. 이몽창은 처음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모든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였지만, 소월혜의 실종부터는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며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제염과의 늑혼에서는 가문을 둘러싼 사회적 위계와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고민한다. 두 측면의 성장을 통해 이몽창은 탕자에서 벗어나 가장으로서의 자질을 확보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이몽창의 ‘어른 되기’가 가장이 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후편인 <이씨

* 이 논문은 제1회 성균국제인문포럼 <소멸하는 인구, 지속 가능한 미래: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인구 문제>(2024. 4. 26.)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의 논평을 맡아 주신 전기화 선생님과 논문의 수정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강사

세대록>에서 이몽창은 완성된 가장처럼 보이지만, 아들 이백문을 대할 때에는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면을 보인다. 자신과 똑 닮은 탕자 아들을 대할 때에는 과거를 의식하고 가장의 역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가장 되기’의 서사에서 이몽창의 변화는 경험의 축적에서 기인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완성된 어른에 대한 시각을 재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나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타고난 기질을 제어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몽창의 시각에서 볼 때 이 경험들은 성장을 위한 ‘기획’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지만, 바꾸어 생각한다면 이는 어른 되기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들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며, 완성된 어른이 아닌 변화해가는 어른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어른 되기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미완성 가운데서 계속 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어른되기, 어른됨, 가장, 성장, 탕자

1. 들어가며

가문의 창달을 다루는 조선 후기 국문장편소설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가문 내 다양한 인물들의 존재 양상이다. 국문장편소설에는 개과하는 악인이나 이념을 전용하는 여성들, 소인의 형상을 보이는 가장 등 한 가지 틀에 포획되지 않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다채로운 세계를 구축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이한 인물 유형으로, 학식과 재주를 겸비하였으면서도 철없는 행동을 보이는 ‘탕자’를 꼽을 수 있다.¹⁾ 이들은 장원 급제를 할 만큼

1) 문학에서 ‘탕자’는 성경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유래한 것으로, 러시아 문학에서 탕자 모티프는 죄인의 구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그 서사 구조는 ‘아들의

충분한 재주를 지녔으면서도 어린 나이부터 여성 편력적인 방탕함을 보이거나 사회의 윤리 도덕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집안의 골칫거리가 된다.²⁾

특이한 점은, 이들은 젊은 시절에는 집안의 골칫거리로 행동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한 집안을 이끄는 가장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연작형 작품의 전편에서 갈등을 일으키던 철없는 탕자가 후편에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전편에서는 방탕을 일삼지만 후편에서는 가장이 되어 자녀를 훈육하고 갈등을 중재한다. 이는 부모의 훈육이나 체벌 등 개과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나이듦’이나 ‘어른됨’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나이듦이란 자연스러운 성숙이기보다는 여러 경험을 통해 본성을 제어하면서 나를 둘러싼 사회와 타협해야 하는 경험의 과정이

떠남 - 방랑 - 참회 - 귀환’으로 정리되는 것이 특징이다(박선영, 『러시아 ‘은세기’ 시문학 속 ‘탕자’ 모티프의 변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51, 한국러시아어학회, 2015). 정치한 의미에서 탕자의 개념은 성경의 탕자 비유가 직접적으로 수용된 것이지만, 방탕한 인물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확대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국문장편소설 속 방탕한 남성 인물을 대변하는 용어로 ‘탕자’를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 국문장편소설 연구에서도 탕자 개념을 활용하여 <완월회맹연>의 정인증을 분석한 논의가 제출된 바 있다. 탁원정, 『가문 내 ‘불우한 탕자’의 계보와 그 변주 - <완월회맹연>의 정인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4, 한국고전문학회, 2018 참조.

- 2) 국문장편소설에서의 탕자는 선행연구에서 ‘호방형 남성주동인물’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된 바 있다. 호방형 남성주동인물에서 추출될 수 있는 공통된 자질로는 기상, 호색, 방탕, 비례, 외모가 있으며, 이들은 총명하고 빼어나면서도 여색을 좋아하고 고집이 있는 인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 논의할 ‘가장이 되는 탕자’ 또한 호방형 남성주동인물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의는 규범을 넘나들던 탕자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정을 살피는 데 주목하고 있으며, 소설에 관여하는 다양한 인물 유형이 아닌 한 유형의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탕자라 지칭하고자 한다. 호방형 남성주동인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장시광, 『호방』 관련 단어와 대하소설 호방형 남성주동인물의 개념』, 『동방학』 26, 동양고전연구소, 2013; 장시광, 『대하소설의 호방형 남성주동인물 연구』, 『은지논총』 35, 은지학회, 2013.

다. 특히 개인적 욕망에만 충실하던 탕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입장을 고려하는 가장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어른 되기’의 양상을 명백히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문장편소설에서 탕자가 가장이 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가장 되기’의 과정과 그로 인한 ‘어른됨’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는 <쌍천기봉>·<이씨세대록> 연작의 주요 인물인 이몽창을 선정하였다. <쌍천기봉>에서 이몽창은 대표적인 탕자로, 가학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통해 수도 없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후편인 <이씨세대록>에서 그는 이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가장으로 변신한다. 전편과 후편을 비교하였을 때 이몽창의 변화는 가히 독보적이며, 개과천선 내지는 훌륭한 어른 되기의 표본처럼 보인다.³⁾ 그렇다면 이몽창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장으로 변화하였으며, 이 변화는 과연 완전한 성숙이라 할 수 있는가? 선행연구에서는 이몽창이 겪은 죄벌(罪罰)에 주목하여, 이몽창이 자유로운 본성과 의지를 포기 혹은 박탈당한 후에야 가문의 중심부에 서게 된다고 논의한 바 있다.⁴⁾ 그러나 이몽창의 성장

3) 물론 국문장편소설의 남주인공 중에는 <쌍천기봉>의 이몽창 외에도 입체적인 성격 변화를 보이는 인물들이 있는데, <소현성록>의 소운성이나 <옥원재합기연>의 소세경이 이에 해당한다. 두 인물 모두 내면의 갈등을 겪고 시간에 따라 성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몽창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몽창의 경우 두 인물에 비해 방탕함의 정도도 심하고 가장이 되기까지의 변화도 명확한 편이므로, 본고에서는 ‘탕자’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몽창을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 논의 과정에서 소운성과 소세경의 내적 성숙에 대한 선행연구도 참조하고자 한다.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 한국어문화회, 2010;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 - <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학회, 2011; 허순우, 「<영이록>의 성장소설적 면모와 교육적 함의-소운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2;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보고서, 2015, 71~97쪽; 전기화, 「<옥원재합기연>의 성장서사적 성격 연구」, 『우리문학연구』 75, 우리문화회, 2022.

4) 구선경, 「가부장제하 남성의 죄벌(罪罰)과 고통의 이면-<쌍천기봉>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405~438쪽.

에는 폭력이나 소외, 고립 외에 다양한 기제들이 존재하며, 체벌이나 훈계 보다는 경험의 축적과 그로 인한 변화가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몽창의 ‘가장 되기’의 기제를 탐구하고, 어른됨의 의미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기실 소설 속 인물들을 성숙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구는 이전부터 있었으며, 고소설을 성장소설로 읽어내려는 시도 또한 다수 제출된 바 있다.⁵⁾ 본고의 관심인 어른됨 또한 상당 부분 성숙과 맞닿아 있으므로, 탕자인 이몽창이 가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논의하며 성숙과 관련된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이씨세대록>에서 이몽창은 적당히 권도를 행하며 가문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완성된 가장의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 닮은 아들 이백문을 대할 때에는 미성숙한 모습을 노출한다. 본고는 이것이 어른 되기의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경험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5) 최기숙, 「성장소설로 본 <금방울전>, <김원전>」, 『연민학지』 7, 연민학회, 1999; 이유경, 「<숙향전>의 여성 성장담적 성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상의 기능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이선형, 「<쌍천기봉>·<이씨세대록> 인물의 성장 의미」,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11; 김수연, 「<오유란전>에 나타난 남성성장과 웃음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장시광,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박은정(2010), 앞의 논문; 허순우(2012), 앞의 논문; 전기화(2022), 앞의 논문.

이 중에서 <쌍천기봉> 연작의 인물 성장에 대해 다룬 이선형의 연구는 본고와 동일한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성장’을 키워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논의에서는 이몽창이 어머니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외도와 자유연애를 하며 욕구를 충족하였으며, 소월혜와의 결혼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성장을 이뤄나간다고 보았다. 본고는 이몽창이 혼사 장애를 통해 내적 성장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완성 같은 성숙한 형태에 도달하였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논자는 이몽창이 자신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 이백문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백문에 대한 이몽창의 태도는 절제된 계도이기 보다는 통제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과도히 의식한 결과처럼 보인다. 본고는 이것이 이몽창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결과라 본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즉 가장으로서의 완성되었더라도 어른으로서의 미완성되지 않은 존재일 수 있으며, 자신의 미성숙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면모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몽창이 가장으로 성장하는 기제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완성이 아닌 진행의 과정으로서 어른됨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규범을 넘나들던 인물이 사회와 타협하고 한 명의 어른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⁶⁾

2. ‘탕자의 가장 되기’의 양상

1) 판단 기준의 부재와 형성

이몽창은 승상 이관성의 둘째 아들로, <쌍천기봉>에서 부인 소월혜와 함께 쌍천(雙鉤)의 주인이 되는 인물이다. 작품 전반에 걸쳐 이몽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편인데, 3권에서 형 이몽현과 처음 등장한 후 상씨와 혼인하는 7권부터 13권까지는 이몽창의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몽창이 <쌍천기봉>의 주인공격 인물로 활약하는 이유는 그의 특이한 성격 때문인데, 부친 이관성과 형 이몽현이 원칙을 중요시하는 규범적 인물인 것과 달리 이몽창은 태어날 때부터 고집스럽고 방탕한 모습을 보인다. 그는 시복 소연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활로 쏘아 눈을 멀게 하는가 하면, 숙부 이연성이 정혜아에게 한눈에 반하자 정혜아를 희롱하는 편지를 몰래 전달하는 등 비례(非禮)한 행실을 돕기도 한다. 더 커서는 집안 시비나 기생을 희롱하여 몰래 정을 통하기도 한다.

이몽창의 이러한 행동은 가학적이면서도 여성 편력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여파를 인지하지 못한

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선본(善本)으로 제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쌍천기봉>(18권 18책)과 <이씨세대록>(26권 26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채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혜아에게 희롱하는 편지를 전달하면 집안 간의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든가, 시비와 통정한 후 그를 거두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이다. 이때마다 부친 이관성이 이몽창을 매질하며 체벌과 훈계를 반복하지만, 이몽창이 어린 나이에 모친의 결핍을 겪었고 학식과 재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훈계는 한번이 호지부지되고 만다.⁷⁾ 때문에 이몽창은 어릴 적부터 부친의 엄교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며, 본인의 문제 행동을 그때그때 모면하는 모습을 보인다.⁸⁾ 자신이 벌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재한 것이다.⁹⁾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바로 소월혜에 대한 불고이취(不告而娶)와 파혼 사건이다. 이몽창은 첫 번째 부인 상씨가 아들 윤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죽자 장례를 치르려 선산으로 떠난다. 그는 장례를 치르고

7) 선행연구에서는 <쌍천기봉>에 나타난 양육 양상을 살펴보면 이관성이 자애로우면서도 엄부로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관성이 아들을 엄격히 훈육한 것은 맞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몽창과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낸 숙부 이연성은 몽창의 폭력적인 행동은 제지하지 않으며, 조부 이현도 손자의 행동을 방자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상을 사랑하여 애중히 여긴다(<쌍천기봉> 권7, 37~38쪽)는 언급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고은임, 「<쌍천기봉>에 나타난 양육 양상과 그 의미」, 『동서인문학』 61,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 100~110쪽 참조.

8) 이몽창의 이런 성격은 그의 형 이몽현의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이몽현은 몽창이 기생을 가까이한 일 때문에 숙부 이연성에게 하소연하는데, 그는 이몽창이 ‘범사에 계교로 속여 걸으려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소원하고, (기생을 가까이한 일은) 이미 알고 묻는 것인데도 마침내 변명한다고 말한다. 이몽창이 매사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변명을 일삼는 인물이라 보는 것이다. <쌍천기봉> 권10, 110쪽 참조.

9) 이렇듯 허용적인 양육 환경과 그로 인한 여파는 <소현성록>의 소운성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운성은 팔에 찌힌 앵혈을 없애기 위해 처녀 소영을 범하는 일을 저지르는데, 이 일에 대해 소송상은 크게 나무라지만 태부인과 석부인은 운성을 이해하고 남성의 욕망을 호방함으로 포장한다. 소운성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굳이 지적하고 문제삼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소운성은 욕정을 금지 못하는 것은 물론, 명현공주와도 자존심 싸움을 하며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정선희(2011), 앞의 논문, 162~165쪽 참조.

돌아오던 중 우연히 소월혜를 보고 그 미색에 반하고, 부모의 허락 없이 멋대로 정혼하는 불고이취의 죄를 저지른다. 그는 부친의 책망을 잠깐 근심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부친이 소월혜를 본다면 그 미색과 기이함을 알아보고 자신의 죄가 상쇄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경사로 돌아오자 이몽창은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부친이 자신을 순시랑의 딸과 혼인시키려 하자 상사병에 걸린다. 숙부 이연성과의 대화를 보면, 이몽창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¹⁰⁾

이몽창은 소월혜와의 혼인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 권도로 한 것’이며, 불고이취에 대한 나름의 대안으로 동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정혼하였으나 동침은 하지 않았으니 소월혜가 타문과 혼인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한 번 정혼한 여자가 어떻게 타문과 혼인할 수 있겠냐고 이연성이 반박하지만 그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는다. 심지어 사건이 밝혀져 부친에게 태장을 맞고 내쫓기자, 그는 소부에 파혼 서간을 보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소월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가문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 또한 생각하지 못한다. 이 또한 소월혜의 부친 소문이 이부에 찾아와 추궁함으로써 가시화되며, 결국 부친의 중재로 이몽창과 소월혜를 혼인시키면서 갈등은 일단락된다. 이 과정에서 이몽창은 파혼 서간으로 소월혜가 받았을 상처나 가문 간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혼인이 진행된다는 사실에만 기뻐한다.

10) 시랑이 디왈 쇼딜(小姪)이 처음의 쇼 시 괴이히미 세속인과 다르미 휘흐얏더니 아야(爺爺) 괴식이 엄정하시니 홀 일이 업سن지라 더를 허호야 다른 성이나 셜기려 호고즈 호느이다 쇼뷔 텡과(聽罷)의 디경 왈 네 엇디 이런 거조를 편시간(片時間) 닐우뇨 형당 성품이 아야그 더으시니 아르신즉 네 등칙을 면티 못호리니 우숙(愚叔)이 입을 줌으려니와 필경을 엇디려 호느뇨 시랑이 추연 디왈 쇼딜이 츠스는 전두를 헤아리고 소 시로 친근히미 업셔 잉혈(驚血)을 머므러시니 소딜의 뜻이 쇼 시 괴이히미 본 후 발 썩른 자의게 아일가 호야 권도(權道)로 성네호여시나 부모 명 업스물 구이(拘礙)호야 친히미 업스미오 즉금 소딜의 병은 순가 혼스로 삼네 어즈러워 나미니 만일 순가 혼스를 물니면 병이 나호리로서이다(<쌍천기봉> 권7, 136~138쪽).

이몽창의 행동은 사회 규범을 어겼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나 판단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몽창이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이관성이 몽창을 태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한 책망일 뿐 이몽창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체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혼 사건만 보더라도 이관성은 이몽창의 불고이취를 책망함으로써 경박한 행동을 다스리려 한 것이었지만, 이몽창은 당장의 일을 모면할 생각에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파혼 서간을 먼저 보내고 만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충동적인 행동만을 일삼는 것이다. 그는 소월혜와 혼인한 후, 이전에 정을 맺었던 시비 옥란이 자신을 거두어달라 청하자 ‘군자가 숙녀를 만났으니 너 같은 것은 지나가는 인연’이라며 다른 남편을 찾아 혼인하라고 말한다. 이때에도 이몽창은 이 말이 초래할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기실 이몽창이 지금까지 자신의 판단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는, 행동의 결과를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시복 소연의 눈은 부친 이관성이 치료해 주었고, 정혜아에게 희롱하는 편지를 전한 일은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용서되었으며, 불고이취의 죄도 결국 부친의 중재와 혼인으로 마무리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결과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상황을 면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 후 이몽창은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연이어 직면하게 된다. 먼저 소월혜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소월혜는 이몽창이 자신을 천첩과 다름없이 대접한다며 한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몽창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애정만 내세우다가 결혼 생활에 실망한다. 그는 형 이몽현에게 답답함을 호소함으로써 몽현의 부인인 계양공주가 소월혜를 훈계하도록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것일 뿐 갈등의 완전한 해소에는 이르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이몽창이지만, 자신이 그간 벌인 일의 결과를 처음 마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옥란의 계교가 시작되며 이몽창은 더 많은 결과에 직면한다. 옥란은 이몽창이 혼인하기 전에 정을 통한 시비인데, 소월혜와 혼인한 후 그는 옥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라며 내치기까지 한다. 이에 옥란은 자신이 내쳐진 것이 소월혜 때문이라 생각하고 앙심을 품어서, 상씨 소생의 아들 윤문을 죽인 후 소월혜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소월혜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이부는 혼란에 빠지고, 이관성은 이몽창에게 소월혜를 모함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이몽창은 옥란을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를 가까이한 일이 없다고 하며, 오히려 소월혜가 음란한 행실을 벌였다고 믿는다. 이 일로 기세를 얻은 옥란은 도어사 조훈을 통해 소월혜를 모함하는 상소를 올리고, 소월혜는 귀양을 가다 자객을 만나 실종된다.

소월혜의 귀양과 실종은 옥란의 계교에 의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태를 무시하고 방관한 이몽창의 태도에 있다. 부친 이관성과 숙부 이연성은 이몽창을 훈계하며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라 하지만, 몽창은 소월혜에 대한 서운함으로 인해 그가 윤문을 죽이고 음란한 행실을 했다고 믿는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의심이나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뒤늦게서야 모든 일이 옥란의 간계였다는 점이 밝혀지고, 뒤이어 소월혜의 실종 소식까지 전해지며 이몽창의 태도는 변화한다. 소월혜가 유배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크게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지만, 실종 소식을 듣자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어시 부인의 분만(分娩) 싱즈헝엿던 줄을 드르미 더욱 놀늬고 앓기며 슬허하나 서숙(庶叔)의 서간 가온디 일월은 천연(遷延)헝여 츠즈미 어려오를 기별헝 여시니 비록 부인의 상격(相格)을 미드미 이시나 진실노 턴니 인스롤 추이(推

理)키 어려온지라 스식이 타연(泰然) 하나 중심의 슬프미 간절히미 중아의 회한(悔恨)하여 자귀 불명(不明)을 탄하고 옥난의 죄 오히려 주륙(誅戮)의 앓가오를 통회(痛悔)하더라¹¹⁾

짧은 서술이지만 이 장면은 이몽창의 내면 서술에서 깨달음이나 반성의 감정이 처음 나타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이전에 불고이취의 죄로 부친에게 태장을 당했을 때에도 이몽창이 사죄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자신을 반성하는 내면 서술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이몽창은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보다 눈치를 보며 부모의 화가 풀리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윤문의 죽음이나 소월혜의 실종에 대해 이몽창은 선부른 판단을 후회하며 슬퍼하고, 가족들에게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인다. 만일 자신이 옥란을 내쳤을 때의 결과를 예상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이를 생각하지 못한 불명(不明)함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다. 그는 부모의 걱정을 덜기 위해 겉으로는 태연하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소월혜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며 애달파한다.¹²⁾ 자신의 판단이 불러온 결과에 처음으로 직면하는 것이다. 이후 이몽창은 동정호에서 우연히 소월혜와 재회하여 경사로 돌아오지만, 이러한 경험은 그가 탕자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이로써 이몽창은 자신의 불명함을 자각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며 판단의 기준을 세워나간다. 그동안 놓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소월혜와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조모의 사망으로 소월혜가 친정의 장례에 따라갈 것을 청하자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살펴보기도 한다. 이후 벌어진

11) <쌍천기봉> 권9, 73쪽. 밑줄은 인용자.

12) 상이 하직고 도라와 일념의 노히지 아니나(<쌍천기봉> 권10, 41쪽); 일념이 쇼 시의 게 미쳐 풀닐 격이 업스니 즈기 당년 박행(薄行)을 추회(追悔)하고 분슈(分訴)연 지 삼지의 청죄 신(信)을 전치 아니하니 속결업시 씬을 조츠 녁술 놀릴 뿐이러라(<쌍천기봉> 권10, 100쪽).

는 사건에서도 이몽창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간다.¹³⁾ <쌍천기봉> 14권에서는 이몽창의 여동생 이빙성과 요익의 결연담이 전개되는데, 요익이 무턱대고 이빙성과 혼인할 뜻을 두자 이몽창은 여러 이유를 들어 요익을 만류한다. 요익에게 이미 정실인 공씨가 있으므로, 여동생이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요익과 이빙성의 혼인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또 요익 앞에서 함부로 이빙성의 이름을 꺼낸 조카 이흥문과 자신의 아들 이성문을 별주며 경솔한 행동을 경계하기도 한다. 동생 이몽원의 혼인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몽원이 최소아를 마음에 두고 서숙모 이해염에게 중매를 부탁하자, 이몽창은 몽원이 불고이취의 죄를 얻지 않으면서도 혼인할 수 있도록 일의 절차를 정해주기도 한다. 판단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인물로 변모하는 것이다.

2) 위계로 인한 사회적 역할 인식

앞서 내면 인식의 차원에서 이몽창의 변화를 살폈다면, 조제염과의 늑혼은 이몽창이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인지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몽창은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를 하고 한림학사에 제수되었다가 병부상서에까지 오르는데, 이때까지 이몽창의 등용은 그의 뛰어난 재주를 보이기 위한 것일 뿐 정치적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옥란의 계교가 중심이 되는 8권까지 이몽창의 서사는 집 안으로 한정되는데, 소월혜가 실종되고 조제염과의 늑혼이 이루어지며 이몽창은 자신과 관계

13)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 이몽창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몽창은 소월혜와 재회한 후에도 자기중심적 태도를 고수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공연히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소월혜가 죽을 위기를 거쳐 돌아온 이후 이몽창은 이전처럼 충동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이몽창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면, 소월혜의 실종 이후부터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예상하는 면모를 보인다. 비록 그러한 고려가 소월혜와의 갈등 해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남지만,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인물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된 위계적 대상들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조제염은 국구(國舅) 조검의 딸로, 소월혜가 실종된 이후 이몽창은 황제의 강권에 의해 조제염과 혼인한다. 이몽창은 소월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여 혼인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지만, 황제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혼인한다. 조제염은 성격이 괴팍하고 살기가 가득한 인물로, 이몽창은 첫날밤에 그의 인물됨을 보고 크게 놀라 조제염을 피한다. 조제염은 자신이 황후의 혈육임을 강조하며 이부에서도 자신을 ‘주인’이라 칭하는 등 권위를 내세우는데, 이부의 어른들은 조제염의 강포한 행실을 보면서도 그가 황이(皇姨)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다. 그러나 이몽창은 대응 양상이 조금 다른데, 그는 조제염의 행실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가족 앞에서 구설을 늘어놓아 조제염을 웃음거리로 삼는다. 조제염의 강포한 행실을 굳이 지적할 생각도 없고 황실과의 관계도 걱정하지 않는다. 정몽흥은 이몽창이 부인의 허물을 외부에 드러낸다고 그 경박함을 지적하지만, 이몽창은 오히려 숙부와 존당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뿐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수한다.¹⁴⁾

이러한 이몽창의 면모는 사혼(賜婚)을 대하는 태도로는 독특한 편이다.

14) 부인이 정식 알 너의 형식 가지록 광뵈(狂悖)호도다 도 시 설스 그러흔들 남지 춤아 비례의 말숨을 조흔 말 전트시 파설(播設)혀여 혼흔(欣欣)호느뇨 다시 이런 말을 두 번 니지 말나 상세 피석 사죄호고 쇼이디왈 희이 호흔 도너의 허믈을 외인더려 창누(昌漏)호 비 아니라 드르신 비 숙당(叔堂)과 존당(尊堂)이시니 도 시의 허믈이 닐타늘 일이 업슬가 호느이다(<쌍천기봉> 권10, 90~91쪽).

이 장면 외에도 이몽창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조제염의 행사에 대해 회언을 일삼는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몽창이 조제염에게 신체·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보았지만(구선정(2014), 앞의 논문, 424쪽), 작품에서 이몽창이 조제염에 대해 말하는 내용은 괴로움의 호소보다 조롱이나 비웃음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가령 권12의 이몽창과 소월혜의 대화에서, 이몽창은 조제염의 행동거지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고 소월혜는 이몽창의 말이 경박한 것을 탄탄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몽창이 조제염의 행실을 싫어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고통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개 사혼은 황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시가에서 혼인 상대에 대해 큰 부담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는데,¹⁵⁾ 이몽창은 아무런 고민이 없기 때문이다. 이몽창의 형 이몽현 또한 이미 장옥경과 혼약을 맺었음에도 황제의 강권으로 계양공주로 정실로 맞이하는데, 이때 이관성은 혼인을 반대하다 하옥되기도 하고 ‘공주가 어질지 않으면 내 집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크게 걱정한다. 이미 혼약을 맺은 장옥경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사혼으로 인해 이몽현과 공주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황실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조제염은 국구의 딸이므로 공주와는 경우가 다르지만, 이몽창의 조부 이현과 이관성의 대화를 보면 앞으로 닥칠 일을 걱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¹⁶⁾ 그러나 이몽창의 경우, 혼인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계적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일관되게 조제염을 무시하며 황실과의 관계나 가문의 입지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조정이나 황실 등 가문 바깥의 세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한 적도 없고, 고려의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작품은 의도적인 사건 배치를 통해 이몽창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대

15) 선행연구에서는 늑흔이 가문과 왕실 위주로 구성된 사회관계망을 명확히 드러낸다는 점이나, 늑흔으로 인해 가문에 가해지는 부담이나 남성 인물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17쪽; 이주영, 「늑흔을 둘러싼 사회 관계망과 전언 분석」, 『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2015; 공혜란, 「〈유씨삼대록〉의 남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공주혼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9, 민족문학사연구소, 2019 참조

16) 텃지 뜻이 그러하시나 니 정심이 두 안히 두는 품을 불상(不祥)이 너겨 전일 계손(諸孫)의게 날넉고 네 쏘 드러거늘 여부지심(汝父之心)을 알며 내척(內戚)과 결혼흔들 집중 죠히 너기드시 승순(承順)하여 군상(君上)의 이러툷 흔신 일을 간치 아니하니 네 터하 정승이 되어 머어 슬 보정 하미 잇느 노 (중략) 히이 선도 유 쵸(遺詔)를 싱 각 고 금 상 허 물 을 ㄱ 리 오 고 져 하여 브 득 이 흔 일 이나 야 야 의 존 의 를 모 라 미 아 니 오 히 이 즐 거 흔 일 이 아 니 로 쇼 이다 전 두(前頭) 스 세 를 싱 각 하 니 금 일은 쇼 소(小事)요 히 이 죽 을 곳 을 어 듭 이 니 이다 (<쌍천기봉> 권10, 78~80쪽, 밑줄은 인용자).

해 인식하게 만든다. 예컨대 조제염과 이몽창의 갈등에 조황후가 개입하게 하거나 황제의 그릇된 판결을 유도함으로써, 이몽창이 황실과 조정, 이부 등 다양한 대상 사이에서의 사회적 위치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조제염은 처음에는 이몽창의 외모에 반해 유혹하려 하지만, 이몽창의 박대가 지속되고 소월혜까지 이부에 돌아오자 불만을 갖는다. 그는 이몽창의 첩 임혜란을 구타하여 처소에 유폐되는데, 언니 조황후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조황후는 정몽홍에게 실정을 갖춘 서간을 보내라 하지만, 정작 서간에 조제염의 부덕이 적혀 있자 편지를 감추고 이몽창이 조제염을 박대한다며 모함한다. 이에 황제는 이몽창을 옥에 가두고 소월혜와 이혼시키라는 조서를 내린다. 이 일로 이부는 혼란에 휩싸이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계양공주가 입궐하여 황제에게 실상을 고하면서 겨우 마무리된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조제염은 이몽창의 둘째 아들 영문을 독살한다. 이몽창은 대로하여 조제염을 관에 고발하지만, 조황후가 심문을 맡은 형부상서 설연을 매수하면서 엉뚱하게 이몽창이 귀양을 가게 된다.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에서 실제의 잘잘못은 중요하지 않으며, 황실과 조정처럼 이몽창이 어찌할 수 없는 권력만이 판결을 좌우하는 것이다.

승상이 본부에 니르러 상셔를 불너 경계 왈 이제 시시 여츠 참혹하니 어디
 가 익히흐믈 폭백(暴白) 흐리오 영문의 독스(毒死)흐과 성교의 죽으미 장춧 오
 월 비상이 나릴 거시오 성명지치(聖明之治) 크게 상홀 거시니 내 만일 남의
 일 갓홀진디 덩확(鼎鑊)의 삼길지언정 일을 올히 홀 거시로디 입의 내 집
 일을 스스로 폭백(暴白)흐미 법의 어기므로 입을 줌으나 내 평시 불초무상
 (不肖無狀)흐야 조당이 일을 이러툃 뒤집어 판단하여 날을 업슨 것갓치 흐
 니 극히 한심흐나 엇지흐리오 네 쏘 영으의 참스(慘死)흐믈 목전의 안도(眼
 賭)흐고 원수도 잡지 못흐고 만니새외(萬里塞外)에 뉴찬(流竄)흐니 모음의 원
 울흐미 극흐려니와 네 아비와 어미를 생각하여 날니 헤아려 덕소의 갔다가 혹
 텐스(天赦)를 넘어 도라오믈 바라노라 상셰 눈물이 옷시 가득흐야 비왈 헉이

무상(無狀)ᄃ와 일이 지츠(至此)ᄃ니 늘을 한ᄃ리잇고 ᄃ의의 원찬(遠竄)은
 족히 앓갑지 아니ᄃ오나 으즈를 참별(慘別)ᄃ와 제 거동이 안저(眼底)의 버
 러시니 토목 심장인들 엇지 참으리잇가 연이나 금일 명교는 간쵸(肝肺)의 삭
 이리이다¹⁷⁾

이관성과 이몽창의 이 대화는 억울하게 귀양 가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훈계가 주 내용이지만, 자기 가문의 일을 조정에서 대면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어려움과 황제의 불명함에 대한 탄식, 자식을 잃고서도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 데 대한 원통함을 드러내고 부자가 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실과 조정 사이에서 가문의 안위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관성의 입을 통해 절절히 드러나고, 이몽창이 이에 대답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권력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앞서 조제염을 대하며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몽창은 이제 조정과 황실, 가문의 복잡한 위계 속에 놓인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 즉 영문의 죽음과 이몽창의 귀양은 황실과 조정의 압도적인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몽창의 입장에서는 역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지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전까지 이몽창이 개인적인 욕망이나 즉흥적인 충동에 따르는 인물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문제에 직접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는 인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몽창이 사면된 직후 황제에게 조제염을 왜 사형에 처하지 않았는지 묻는 장면이나, 이몽창이 오랜만에 벗들을 대하는 자리에서 왜 조제염을 논핵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부분에서도 잘 드러난다. 황제가 사흔 명령을 내릴 당시 이몽창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이제는 황제에게 왜 조제염의 죄를 가볍게 다스렸는지를 물어보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황후의 낫을 보아 언관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형벌을

17) <쌍천기봉> 권13, 45~46쪽. 밑줄은 인용자.

감해 주었다’는 황제의 대답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만, 언관에 참여(參預)하는 벗들을 대해서는 조제엄을 논핵하지 않은 이유가 국구의 권세 때문이냐며 꾸짖고, 평소처럼 회언으로 대답하는 벗들에게 사리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며 분노한다.¹⁸⁾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책망이지만 이러한 발언은 이몽창이 자신과 관련된 조정의 일, 외부의 문제에 반응하고 책임을 묻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이몽창은 부친의 보호 안에서 성장하던 아이에서 벗어나, 사회적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가장의 면모를 점점 갖추게 된다.

<쌍천기봉>에서 이몽창의 서사는 여기까지지만, 이후 전개되는 내용에서는 이부의 서열이 재편되며 이몽창이 집안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이몽창의 증조모 진부인과 조부 이현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고 숙부 이한성마저 복흥노와 싸우다 전사하자, 그는 부친 이관성을 보좌하여 집안을 다스리게 된다. 물론 형 이몽현도 함께 집안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쌍천기봉> 연작에서는 이몽창의 대외적인 성공을 강조함으로써 그가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몽창은 토목 지변(土木之變)으로 정통제가 포로로 사로잡히자 이관성과 함께 출정하여 정통제를 구하고 복위시키는 한편, 동오왕의 반란과 강주 뉴적의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연왕에 봉해지기까지 한다. 공적인 성취를 통해 가문을 대표

18) 상제 사은 주왕 즈고로 살인자를 디살(代殺)허거늘 폐해 엇지 묘녀의 죄를 경히 다스리시니잇고 상이 답왈 법이 그러하나 황후의 낫출 보와 언관이 닷토지 아니호니 감스(減死)허엿느니라 상제 앙앙(怏怏)이 집의 도라오니 친봉이 셔당에 메여 별회(別懷)를 닐을시 이셔 장육지 간의태우 되고 임 상셔 계삼즈 임계운 등이 다 도어스틀 허엿느니라 상제 계인을 향하여 왕 제형들이 의고 고상호를 즈랑허더니 국구(國舅)의 세를 두러 발부(潑婦)를 논핵(論劾)지 아니니 저리코 므슴 언관의 참여(參預)허느노 (중략) 상제 소왈 투부(妬婦)의 죄상이 측낭업고 지어(至於) 유즈(幼子)를 짐살(鴆殺)허른 죄 극률(極律)의 가허거늘 제형이 소테 지통을 고렴(顧念)치 아니호고 국구의 세만 보아 발부(潑婦)를 편히 감사(減死)하니 소테 사툼의 아버 되야 그 즈식의 원슈 잡지 못호를 한호노라(<쌍천기봉> 권14, 4~5쪽).

하는 인물로 자리 잡는 것이다.¹⁹⁾ 이제 이몽창은 성숙한 어른으로서 집안의 혼사를 주관하고 자녀들의 부부 갈등을 중재하기도 한다. 젊은 시절의 방탕에서 벗어나, 가문의 수장이자 국가의 충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수하는 가장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3) 자녀에 대한 배척과 수용

지금까지 <쌍천기봉>에서 이몽창이 탕자의 모습을 벗어나 가장의 면모를 갖추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씨세대록>에서 이몽창은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연왕에 봉해지고, 대부분의 집안일을 주도하며 이부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군림한다. 그는 이제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과 장대한 체격을 지닌²⁰⁾ 중년의 어른으로, 아들 이성문과 이경문, 조카 이홍문을 데리고 가문을 유연하게 이끌어간다.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탕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렇듯 외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해서 이몽창이 완전무결한 어른의 형상을 갖추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씨세대록>의 중반부까지 이몽창은 권도를 행하며 유연하게 가문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 닮은 탕자 이백문이 등장하는 13권부터는 다소 충동적이면서도 불안한 면모를 보인다.

이백문은 이몽창의 셋째 아들로, 어릴 적부터 기질이 빼어나고 학식과 재주를 겸비하고 있어 제후의 상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19) 이렇게 부모 세대의 사망과 공적 성취를 통해 가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은 <소현성록>의 소운성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운성은 운남국과의 전쟁에서 공을 이룬 후 부친을 대신하여 진왕에 오르며 가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다. 그가 최종적으로 가장이 되는 것은 양부인과 승상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이지만, 그 전에 이미 영웅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소부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군림한다. <쌍천기봉> 또한 이몽창의 공적 성취와 조부모 세대 인물들의 사망을 연달아 제시하면서 이몽창이 실질적인 가장이 되게끔 한다. 박은정(2010), 앞의 논문, 71쪽.

20) 연왕은 나로서 길기 가슴의 느려디고 구각(軀殼)이 장대흐르(*이씨세대록*> 권7, 90쪽).

기질과 달리 이백문은 술을 즐기고 미색을 좋아하는 등 탕자의 면모를 지녔는데, 그는 집에서는 군자인 척하나 밖에서는 투전을 일삼는다. 어느 날 이백문은 투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는데, 이 장면을 형 이경문이 보게 되어 이몽창에게까지 알려지고 이백문은 매를 맞는다. 그런데 이몽창은 아들의 비행을 처음 대면하자마자 과도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그는 이백문이 ‘노년의 부모에게 불효를 끼칠 것이니 시원하게 죽이는 것이 옳다’며 30여 대를 맹타하고, 이후 이백문의 행동을 일일이 제한한다. 심지어 이백문이 과거를 보고 싶다고 하자 ‘방탕한 행동 때문에 내 집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아버가 죽은 후에야 아무렇게나 하라’고 거침없이 비난하고,²¹⁾ 기어코 과거를 보러 간 백문이 장원 급제를 하자 속으로 분노한다. 그는 이백문에게 부모가 알지 못하는 급제를 했으니 아무 데나 가 있으라며 집에 오지 못하게 한다.

이몽창의 이러한 행사는 겉으로 보기에 앞으로 벌어질 이백문의 방탕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형들과 달리, 이백문은 부인인 화채옥을 이유 없이 박대하고 노화도²²⁾와 음행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방탕한 행실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백문을 꾸짖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들의 장래보다는 아들의 행실이 가문의 안위를 위협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백문이 투전을 하다가 들켰을 때부터 그가 불효를 끼칠 것이라 언급하며, 이백문이 문호를 위협할 자식이니 미리 죽여야 한다는 언급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21) 네 이제 구상유취(口尙乳臭)를 먼티 못헛엇거늘 범스를 므음으로 흥기를 계궤(稽揆) 흥니 이 므슴 도리뇨 너의 미치고 실성헌 괴운으로 요형 석은 글귀로 성과(成科)흥미 이실진디 더욱 그 방탕 화려헌 흥스를 도야 내 집을 망헛오고 그칠 거서니 여뵈 죽은 후 아모리나 흐라(<이씨세대록> 권14, 81~82쪽).

22) 노화도의 본명은 노몽화로, 이몽현의 아들 이홍문의 둘째 부인이었으나 첫째 부인인 양난화를 모함한 죄로 이부에서 내쳐진 인물이다. 그는 이홍문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 요승 혜선의 도술로 열 살 어린 여자로 변신하고, 노화도라 개명하여 이백문과 함께 방탕한 행실을 저지른다.

심지어 이백문이 없는 자리에서도 이관성에게 백문을 죽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발언하기도 한다.²³⁾ 따라서 그를 제어하는 방식 또한 훈계나 계도보다는 배척에 가깝다. 계도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태장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백문이 부인 화채옥이 자신을 참소한 것으로 오해해 서당을 탈출하자 둘째 아들 이경문을 시켜 백문을 태장한 후 흡족히 여기기도 한다.²⁴⁾ 전작인 <쌍천기봉>에서 이관성이 이몽창을 엄하게 혼내면서도 상처를 치료해 주며 애정을 보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들의 잘못을 교정해주시기보다는, 추후 가문에 위협이 될 인물로 인식하여 과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그의 과도함이 이몽창 자신의 과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로 읽힌다는 점이다. 작품은 이몽창이 이백문을 태장할 때마다 다른 인물의 입을 빌려 이몽창의 젊은 시절을 소환하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숙부, 부인, 서모 등 여러 인물의 입을 통해 이몽창의 과거가 끊임 없이 언급된다. 이러한 비교 논의는 이몽창을 앞에 두고도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이들은 이몽창의 과거 잘못에 비하면 이백문의 잘못은 크지 않다며 이몽창이 과연 가장으로서 이백문을 혼낼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논박하기도 한다.²⁵⁾ 분위기상 희언처럼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같은 대화가 여

23) 이런 즈식을 두었다가 문호의 큰 욕이 미츨리니 스정을 뜻쳐 스스흐미 엇더하니잇고 (<이씨세대록> 권14, 116쪽); 너 가튼 즈식을 살녀 두어 조선의 욕을 날위고 니시 청문의 용납하리오 썰니 장하의 죽어 선산도 니시 묘하를 심각지 말나(<이씨세대록> 권16, 20쪽).

24) 드더여 시노(侍奴)를 명하야 한님을 불너오라 하니 한님이 급히 니르러 승명하미 왕이 좌우를 쭈지져 잡아 느리오라 하고 합문을 닷고 태부를 명하야 치라 하니 태뷔 슈명하야 난간 ㄱ의 안자 고찰하야 치며 슈죄하야 굴오더 (중략) 설파의 삼십여 당을 쳐 쓰어 내치매 미우의 ㄱ득흔 노기 춘 괴운이 상풍(霜風)이 눈을 놀리며 추상이 월하의 번득이는 듯하야 준엄흔 괴운이 일실을 움죽이니 왕이 크게 아롭다이 너겨 희석이 느치 ㄱ득하더니 다시 보니 괴운이 느죽하고 화기 ㄱ득하야 안셔히 알피 나 이와 복명(復命)하느니라 두긔거오미 만심의 ㄱ득하야 고개 조을 분이러라(<이씨세대록> 권15, 65~66쪽).

러 번 반복되는 모양은 이백문을 다스리는 데 있어 이몽창의 과거가 그만큼 신경 쓰이는 요소라는 점을 방증한다. ‘아버가 잘못되었을수록 자식은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며 ‘아들에게나마 위엄을 보이겠다’는 이몽창의 언급은, 이백문의 현 상황과 자신의 과거를 동일선상에 놓으면서도 그에서 벗어난 자신을 상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의 역할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 가문의 안위를 위해 방탕한 자녀를 제어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극단적인 배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이백문이 이부에서 나와 더 큰 사건을 일으키고 가문에서 배제되는 계기가 된다. 이백문은 노화도의 계교에 속아 자기 부인인 화채옥과 사촌 형 이홍문이 부정한 관계라고 믿는데, 이에 이몽창은 이백문을 태장하고 이부에서 내쫓는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이백문은 일가친척 앞에서 이홍문이 화채옥과 부정한 행실을 했으며 공개적으로 욕한다. 이는 곧 가문의 위기와도 직결되는데, 이홍문은 장차 가문을 이을 장손인데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쓴다면 그에 따른 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홍문의 처벌은 귀양을 가는 선에서 마무리되지만, 이몽창은 가문을 위기에 빠트렸다는 생각에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그는 짐주(鳩酒)를 내오라 하여 이백문을 죽이려 하는가 하면, 이백문을 잡아놓고 문을 걸어 잠근 채 태장을 쳐 죽이려고도 한다.²⁵⁾ 기실 이백문은 노화도의 계교에 속았을 뿐이고 이몽창도 이를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백문의 사정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를 이부에서 완전히 축출해 버린다. 집안에서 내쫓는 것은 물론, 아들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몽창과 이백문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백문은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배척하기만 하는 아버지에게 원망을 품고, 이몽창은

25) <이씨세대록> 권14, 117~119쪽; 권16, 52~59쪽; 권18, 26~28쪽; 권19, 13~17쪽.

26) <이씨세대록> 권16, 32쪽; 권17, 89~92쪽.

‘성품이 부정한 것과는 말하지 않는다’며 가문의 안위를 해친 이백문을 용서하지 않는다. 분명 이백문의 과오가 있기는 하지만, 이몽창의 태도는 아버지라기보다는 가정에 지나치게 경도된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피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백문이 가문에 위협이 될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은 부자의 갈등을 극단으로 치달으면서도, 부자가 화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이백문을 다시 이부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수용 과정은 이몽창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엄격한 가장인 것을 넘어 아버지로서 자신의 미숙함을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이부에서 나와 노화도와 방탕하게 살던 이백문은 서서히 가족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그는 퇴조하던 길에 문득 궁금한 마음에 이부에 들르게 되는데, 오랜만에 부모의 얼굴을 보고 반갑고 슬픈 마음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 이몽창은 어이없어하며 이백문을 맹타하지만, 이전과 달리 백문이 묵묵히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뉘우치는가 하여 내쫓지 않고 서당에서 조리하게끔 한다. 그러던 중에 노화도의 계교가 밝혀지면서 이흥문과 화채옥의 누명이 벗겨지고, 이백문도 계교에 속았음이 드러난다. 이흥문은 귀양에서 풀려나지만, 조정에서는 이백문의 처벌 여부를 두고 고심한다. 계교에 속은 것이긴 하나 음란한 행실을 한 것도 사실이고, 무죄한 형을 귀양 가게 했기 때문이다. 황제는 이몽창의 공로를 보아 이백문을 용서하려 하지만, 이몽창은 오히려 이백문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여러 번 올린다. 이흥문이 완전히 누명에서 벗어나고 가문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백문이 이 역할을 맡아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잘못을 반성한 아들을 벌하라고 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몽현은 ‘호랑이도 제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자의 정이 지나치게 얕다’고 말하지만 이몽창은 가문의 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백문

이 귀양길을 떠나는 순간에도 얼굴 한 번 보지 않으며, 가장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막상 백문이 떠나자 이몽창은 처음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뉴 부인과 승상이 학소의 원벌을 슬허하며 그 거지를 무르니 등문이 즈시고하니 모다 참연 경동하며 상셔의 눈이 부어시믈 더욱 가련이 너져 각각 눈물을 느리오니 왕이 느죽이 웃고 골오더 저 하나히 죽어도 대단티 아니헝거늘 무스히 노혀 귀향 가를 근심헝리잇가 관겨티 아니헝이다 모다 역시 웃고 인정이 박의(薄矣)라 헝대 왕이 완연(莞然) 미쇼헝고 물러 숙현당의 도라오니 시네 석식을 드리는 디라 왕이 물리티고 녀으를 불러 술을 가져오라 햏야 호상(壺觴)을 즈작(自酌) 햏야 십여 비의 대취하니 창전(窓前)의 비겨 텃인(天涯)를 바라보매 츠시 칠월 망간이라 월식이 도요햏야 옥난의 비이니 정이 건곤의 파사(婆娑)헝디라 더욱 심식 척감(戚感)헝고 슬픈 뜻이 경각의 박출(百出)햏야 희음업시 절구 두어 슈를 지어 읍프매 성음이 강개 처창헝고 시늘이 처절햏야 좌위 눈물을 느리오더니 읍기를 파햏매 봉안으로조차 눈물이 상연(傷然)이 찌러지니 상셔 임의 디기헝고 안식을 느초와 진왈 금야 월식이 아롬듬고 혜풍(蕙風)이 한가햏거늘 대인이 엇던 고로 슬허햏시니잇가 왕이 묵묵 낭구의 기리 탄왈 너 아헝 총명헝므로 아디 못햏느냐 너 대의를 세우고 동기(同氣)를 갑햏매 즈식을 스스로 스디의 녀코 제 남형의 보디 못햏미 비인정이어늘 제 그리 설워햏던 거동을 생각하니 부즈지정이 능히 안안(晏晏)햏라 만일 백문이 남황(南荒) 장녀(瘴癘)를 견디디 못햏야 보전티 못햏던대 너 결연이 물외에 소요햏야 세상의 참예티 아니리라²⁷⁾

이백문은 형제들을 붙들고 서럽게 울다가 떠나고, 이백문의 형들은 돌아와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다. 이몽창은 백문이 죽는 것도 대단치 않은데 귀양 가는 것을 왜 근심하나며 태연한 모습을 보이지만, 막상 혼자 있게 되자 술을 마시며 슬퍼한다. 아버지로서 인정이 없었던 자신에 대한 한탄은 물론, 부자지정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슬퍼하는 것이다. 그

27) <이씨세대록> 권20, 16~19쪽. 밑줄은 인용자.

러면서 이몽창은 만약 이백문이 귀양지에서 몸을 보전하지 못한다면 세상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다. 지금까지 아버지보다는 가장으로서 아들을 대하다가 귀양까지 보내게 되었는데, 만약 이백문이 죽게 된다면 더 이상 가장이자 신하로서 조정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부인 소월혜에게도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온화한 낯을 보인 적이 없음을 한스러워한다.

언뜻 보면 이 장면은 이몽창이 가장 이면에 존재하는 아버지로서의 정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앞에서 이몽창이 이백문에게 보인 잔혹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의외의 면모라 할 수 있다. 이몽창의 시각에서 이백문은 사랑하는 아들보다는 가문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었는데, 막상 가문을 위해 아들의 처형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아들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무정함을 타하는 것이다. 기실 <이씨세대록>에서 이백문은 이부에서 쫓겨나는 시점부터 가족의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몽창은 한 번도 이백문에게 아버지로서의 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문과 아들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이몽창은 그제서야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자각한다. 앞뒤의 개연성을 따져 본다면, 이 장면은 가장의 역할만을 충실히 하던 인물이 아버지로서의 미숙함이나 잘못을 깨닫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전까지 이몽창은 완성된 가장으로서 가문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지만, 이백문을 대하면서부터는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아버지로서 성장하는 인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작품 전개상 이몽창이 가장의 역할에 회의를 갖거나 이백문과의 갈등을 바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몽창은 이백문의 귀양살이가 끝날 때까지 그를 만나지 않으며, 출정으로 인해 백문의 귀양지를 지나갈 때에도 아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그가 이백문을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때는 이백문이 귀양에서 풀려나고 장인 화 공의 용서까지 받은 후이다. 이백문을 둘러싼 모든 사회적 혐의가 벗겨지고 난 후에야 이부의 일원

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백문이 용서를 받고 난 후, <이씨세대록>에서는 이몽창이 처음으로 아들과 서헌에서 함께 자며 아끼고 애중하는 모습을 보인다.²⁸⁾ <쌍천기봉>에서 나타난 이몽창의 변화가 가장으로 성장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씨세대록>에서는 ‘완성된 가장’ 이면에 숨겨진 아버지로서의 미숙함, 그리고 이를 깨달아가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종적으로 <쌍천기봉> 연작은 탕자 이몽창이 가장으로 성장하고, 자녀에 대한 애정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어른 되기’ 서사와 어른됨의 의미

1) 경험의 축적과 사회와의 타협

국문장편소설에서 탕자는 그가 지닌 기질로써 설명된다. 이들은 술과 여색을 좋아하며 성품이 고집스럽고 과도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작품은 이러한 성품이 어떠한 계기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처럼 설명한다. 가령 <쌍천기봉>에서 이몽창은 ‘본디 고집이 세고 성품이 과도하다’고 표현되며, <이씨세대록>에서 이백문은 ‘본래 성품이 술을 즐기고 미색을 좋아한다’고 소개된다. 즉 탕자의 성격은 기질적인 본성의 영역인 것이다. 한편 이들은 뛰어난 학식과 재주를 지니고 능력이 출중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언젠가 가장이 될 인물이지만, 방탕한 기질과 뛰어난 기상이 혼합되어 있어 아직 그 기상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28) 왕이 혼연이 의관을 그르코 버개의 지혀며 흑스를 거터 누으라 호야 종야토록 그 몸을 어르문지고 손을 잡아 비록 입으로 말을 아니나 심하의 익련흔 뜻과 잔영이 너기미 극히니 흑시 감은하미 국골하고 바야호로 부친의 진경 교무를 보니 만식 여의호야 알프던디 다 드러나고 깃뼘과 즐거오미 비길 곳 업고 초후 등이 역시 큰 경스로 아라 일성 유희이 다 프리디더라(<이씨세대록> 권21, 94~95쪽).

곧 국문장편소설에서 탕자는 미래의 가장이 될 인물로, 작품은 이들이 지닌 방탕함이나 비례의 행위를 구체화하여 서사를 전개하면서도 이들이 차후 훌륭한 가장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즉 탕자가 등장하는 국문장편소설에서 서사의 초점은 이들이 가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가장이 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꾸어 생각한다면, 결국 탕자의 가장 되기 서사는 한 사람이 어떻게 본래 타고난 기질을 조절하고 사회적 역할을 무사히 수행하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 속 가장은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내면화하면서도 집안과 대외적인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인물로 표현되는데, 앞서 탕자의 기질적 특성을 생각한다면 ‘가장 되기’ 서사는 철없는 젊은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재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쌍천기봉>과 <이씨세대록>에서 이몽창의 변화는 이 과정을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2장에서 살핀 것처럼, 이몽창이 가장이 되는 양상은 그가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몽창의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은 억압되거나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 가능한 방향으로 변모한다. <이씨세대록>에서 이몽창이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권도를 행하는 가장이 되는 것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어진

29) 그런 점에서 이몽창의 변화는 성장소설의 주인공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장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외부 세계와의 대결을 통해 정신적 발전을 이루는 점에 주목하는데, 정신적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서 작품이 목표로 하는 주관적인 이상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 성장소설에서 정신적 완성이란 시민계급의 교양 이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국문장편소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탕자에서 가장으로 성장하는 이몽창의 변화는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층이 지향하는 ‘이상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성장소설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차봉희, 『문학텍스트의 전통과 해체 그리고 변신』, 문매미, 2003, 17~42쪽;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출판사, 2007, 289~303쪽.

역할과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을 따라가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몽창이 겪는 이러한 내적 성숙이 그를 둘러싼 다양한 경험의 축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쌍천기봉>에서 이몽창은 불교 이취 사건, 아들 윤문과 영문의 죽음, 조제염과의 갈등과 귀양 등 다양한 사건을 통해 방탕한 탕자의 모습에서 벗어난다. 물론 <쌍천기봉>에서 이러한 ‘경험’들은 이몽창 한 명의 성장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가령 이몽창의 첫째 아들 윤문의 죽음이나 소월혜의 귀양은, 이몽창이 그동안 방관하던 일들의 결과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판단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소월혜 개인의 변화나 성숙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몽창이 주축 가문에서 태어난 남성이라는 점이 든든한 보호막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비판³⁰⁾ 또한 이러한 관점과 맥을 함께 한다. 자신의 불명함을 깨닫고 반성한 후 이몽창이 소월혜를 예의로써 대하기는 하지만, 이는 이몽창 개인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소월혜 입장에서는 감정의 완전한 해소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가문을 이루는 다양한 존재들이, 사실은 탕자의 어른됨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몽창의 가장 되기의 양상은 혼자 힘만으로는 어른이 될 수 없으며 어른 되기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관계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기서의 관계란 단순히 부모의 훈육이나 계도의 차원뿐만 아니라, 황실과의 위계나 가문의 입장, 부인과의 갈등, 자녀와의 관계 등 이몽창을 둘러싼 다양한 연결망을 의미한다. 각각의 관계에서 이몽창은 자신에게 맞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에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 첫 번째 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소월

30) 장시광(2013b), 앞의 논문, 135쪽.

혜의 귀양이다. 이때 이몽창은 처음으로 자신의 불명함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가 옥란을 미리 제어했거나 계교를 눈치챈다면 소월혜의 실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사건을 외면하더라도 직접적인 책임은 피할 수 있었지만, 혼인 이후에는 이몽창이 직접적으로 가족과 가문의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몽창의 결정과 행동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몽창은 처음에 이를 알지 못하다가 소월혜의 귀양을 통해 뒤늦게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한편 조제염과의 갈등을 통해 이몽창은 황실과 가문의 위계 관계뿐만 아니라 가문을 위한 적절한 처신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이는 이몽창이 가장으로서의 대외적인 책임을 인지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전까지 이몽창은 아버지와 숙부의 그늘에 숨어 가문과 관련된 일들에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황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부터는 실제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존재하는 위계질서를 인식하고 가문 차원에서 적절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점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편 <이씨세대록>에서 이몽창은 황실과의 관계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가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백문의 처결 문제를 놓고도, 가문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들을 죽여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기도 한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아버지로서의 괴로움과 부성애를 깨닫긴 하지만, 가문이 직면한 문제에는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렇듯 가문 내외의 사건들은 이몽창이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가문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씨세대록>에서는 이몽창이 며느리 화채옥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자, 숙부 이연성이 이몽창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며 소월혜가 모함을 당했을 때와 다른 태도인 것을 두고 놀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에

이몽창은 귀양과 정벌, 모해 등 자신이 그간 겪은 일들을 말하며 ‘세상일을 다양하게 겪다 보니 이십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고, 이연성은 이몽창을 두고 ‘젊었을 적에는 아득하고 늙을 고비에 총민(聰敏)하다’고 평한다.³¹⁾ 이연성의 이 대화는 이몽창을 놀리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앞서 이몽창의 대답과 결부시켜본다면 어른됨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어른 되기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에서 나아가, 나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과 경합을 벌이고 합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완성된 어른’에 대한 문제 제기

<쌍천기봉>·<이씨세대록> 연작에서 이몽창의 ‘가장 되기’ 서사는 그가 조제염의 모해로 귀양을 다녀오는 <쌍천기봉> 13권에서 잠시 일단락된다. 이후 이부의 큰어른 역할을 하던 진부인과 이현이 연달아 사망하고, 이몽창은 부친 이관성과 함께 오랑캐에게 사로잡힌 정통제를 구해 그를 다시 황제로 옹립한다. 또 북흉노의 침입을 막던 중 숙부 이한성이 사망하자 이몽창은 이관성·이몽현과 함께 가문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즉 <쌍천기봉> 14권부터 이몽창은 이부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씨세대록>에 이르면 서술자는 이몽창이 천고의 개세영재(蓋世英才)이며 운주유악(運籌帷幄)한 재목³²⁾이라 설명하며 그가 가문과 조정의 일에 능한 ‘완성된 어른’인 것처럼 묘사한다. 심지어 서사의 중심도 이몽창의 자식 세대 결연담으로 이동해서, 자녀들의 혼사를 정대하게 처리하는 이몽창의 모습은 이미 성숙한 어른이어서 더 이상 변화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가문 내에서는 원칙과 권도를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관계를 적절히 조절하고, 조정과 황실 사이에서는 가문에 이익이 되는 적절한 처신을 행

31) <이씨세대록> 권17, 26~28쪽.

32) <이씨세대록> 권1, 5~6쪽.

하는 등 가장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세대록>에서는 이백문이라는 또 다른 탕자를 둬으로써 이몽창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다. 완성된 어른처럼 보이는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대하면서 보이는 불안과 미성숙함에 주목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탕자에서 벗어난 이몽창은 정상성의 범주에서 아들을 판단하고, 이들의 비행을 이해해주기보다는 더 엄격한 견지에서 아들을 배척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가장과 가문 구성원의 관계에서 가문에 해가 될 인물인지 아닌지만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부의 어른들은 이몽창의 젊은 시절을 언급하며 그가 아들을 태장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논하는데, 그럴수록 이몽창은 ‘자식이라도 잘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가문의 안위를 강조하며 아들을 배척한다. 이백문이 탕자의 행실을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은 더 엄격한 가장의 위치에 서서 아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이백문의 형들인 이성문, 이경문 등이 전부 규범적인 인물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몽창의 불안은 그 정도가 과한 편이다. 이렇듯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의 행실은, 완성된 어른을 전제하는 시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실 국문장편소설에서 가장이 항상 완성된 어른으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문장편소설에는 소인의 성품을 지닌 아버지가 등장하여 효자 아들을 배척하거나, 영특한 사위와 대립하며 용서 갈등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소인형 가장들은 탕자와 마찬가지로 타고난 기질로 설명되며, 처음부터 미성숙한 어른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갈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서사 전개상의 주요 문제였던 이들이 개과하면서 작품의 중심 갈등은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쌍천기봉>의 서사로만 본다면 이몽창의 ‘가장 되기’ 또한 소인형 가장들의 개과 양상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몽창이 가장으로 성장하면서 집안에서의 갈등이 마무리되고, 서사의 초점이 집 밖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세대록>의 내용까지 본다면, 이몽창의 서사는 탕자에서 가장으로 거듭났던 인물이 사실은 또 다른 미숙함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미 다 성장하여 완성된 어른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불안을 느끼며 충동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몽창의 모습은 성숙에 일정한 도달점이 있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곧 <이씨세대록>에서 보인 이몽창의 모습은 대외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외에,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 등 인격적 성숙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완성된 어른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가장 되기’의 더 상위 범주에는 인격적 성숙을 통한 ‘어른 되기’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³³⁾ 이는 이몽창의 성숙이 과거의 자신 및 변화에 대한 대응과 상응한다는 점에서도 궤를 같이한다. <이씨세대록>에서 이백문은 이몽창의 젊은 시절에 비견될 만큼 방탕하지만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는 인물로 묘사되는데, 이몽창이 백문을 외면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의식하고 현재의 가장 역할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아들을 이해하는 인간적인 성숙이 더해져야 바로소 ‘어른 되기’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쌍천기봉> 연작은 이몽창의 출생부터 어른 되기의 전 과정이 담긴 서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어른됨이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신을 쌓아가는 축적의 과정이자, 결점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또다시 새로운

33) ‘가장 되기’ 및 ‘어른 되기’의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 보충하였다. <쌍천기봉>의 서사가 이몽창을 탕자에서 가장으로 만들었다면, <이씨세대록>에서 이백문과의 갈등은 아버지로서의 인격적 성숙을 꾀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가장에서 어른 되기의 서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논의 전반의 표현을 수정하고 3장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어른됨’의 의미에 대해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변화에 대응하는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4. 나오며

지금까지 국문장편소설 <쌍천기봉> 연작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어른 되기의 과정과 어른됨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몽창이 타고난 방탕함을 제어하고 가장이 되는 서사는, 곧 자신이 가진 기질을 조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쌍천기봉> 연작에 나타난 이몽창의 어른 되기 서사를 크게 세 기점으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가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으로는 판단 기준의 정립과 사회적 역할의 체득을 들 수 있었다. 두 지점은 각각 이몽창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동의 원칙을 세우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몽창은 처음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모든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였지만, 소월혜와 혼인한 후부터는 자신이 벌인 일들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제염과의 늑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전까지 이몽창은 가문의 입장이나 황실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지만, 아들 영문이 독살당하고 자신마저 부당하게 귀양가는 상황에 이르자 가문을 둘러싼 사회적 위계와 자신의 처신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다. 두 측면의 성장을 통해 이몽창은 가장으로서의 자질을 확보하고 탕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후편인 <이씨세대

34) 본고에서 다룬 <쌍천기봉>의 이몽창과 비슷한 인물로 <완월회맹연>의 정인광과 정인중, <소현성록>의 소운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방탕하면서도 가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몽창과 유사한데, 이들을 비교하여 논의를 전개한다면 국문장편소설의 주요 서사 중 하나로 ‘탕자의 가장되기’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탕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몽창을 다루고 논의의 전개의 측면에서 소운성의 사례를 인용하였으나, 차후 다른 지면에서 이들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록>에서는 이미 완성된 가장인 것처럼 보이는 이몽창이, 아들 이백문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몽창은 자신의 과거를 의식하고 가장의 역할에 집착함으로써 이백문과 갈등을 벌이고, 아들의 처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식에 대한 애정을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이몽창은 가장 되기의 단계에서 나아가 어른 되기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가장 되기’의 서사에서 이몽창의 내적 성숙은 경험의 축적에서 기인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완성된 어른에 대한 시각을 재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나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타고난 기질을 제어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몽창의 시각에서 볼 때 이 경험들은 성장을 위한 ‘기획’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지만, 바꾸어 생각한다면 이는 어른 되기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들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며, 완성된 어른이 아닌 변화해가는 어른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어른 되기란 단순히 나이를 먹고 사회적 성취와 지위를 갖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미완성 가운데서 계속 인간적 성숙을 추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쌍천기봉>(18권 18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이씨세대록>(26권 26책)
- 고은임, 「<쌍천기봉>에 나타난 양육 양상과 그 의미」, 『동서인문학』 61,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 97~126쪽.
- 공혜란, 「<유씨삼대록>의 남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공주혼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9, 민족문화사연구소, 2019, 79~106쪽.
- 구선정, 「가부장제하 남성의 죄벌(罪罰)과 고통의 이면-〈쌍천기봉〉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405~438쪽.
- 김수연, 「<오유란전>에 나타난 남성성장과 웃음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185~216쪽.
-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출판사, 2007, 1~510쪽.
- 박선영, 「러시아 ‘은세기’ 시문학 속 ‘탕자’ 모티프의 변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51, 한국러시아학회, 2015, 29~59쪽.
-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53~86쪽.
- 이선형, 「<쌍천기봉>-<이씨세대록> 인물의 성장 의미」,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11, 1~224쪽.
- 이유경, 「<숙향전>의 여성 성장담적 성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상의 기능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499~528쪽.
- 이주영, 「늑혼을 둘러싼 사회 관계망과 전언 분석」, 『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2015, 195~216쪽.
-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보고서, 2015, 1~300쪽.
- 장시광,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131~165쪽.
-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87~232쪽.
- 장시광, 「‘호방’ 관련 단어와 대하소설 호방형 남성주동인물의 개념」, 『동방학』 26, 동양고전연구소, 2013a, 219~259쪽.

- 장시광, 「대하소설의 호방형 남성주동인물 연구」, 『온지논총』 35, 온지학회, 2013b, 93~138쪽.
- 전기화, 「〈옥원재합기연〉의 성장서사적 성격 연구」, 『우리문학연구』 75, 우리 문학회, 2022, 145~185쪽.
-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 - 〈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6쪽.
- 차봉희, 『문학텍스트의 전통과 해체 그리고 변신』, 문매미, 2003, 1~740쪽.
- 최기숙, 「성장소설로 본 <금방울전>, <김원전>」, 『연민학지』 7, 연민학회, 1999, 153~188쪽.
- 탁원정, 「가문 내 ‘불우한 당자’의 계보와 그 변주-〈완월희맹연〉의 정인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4, 한국고전문학회, 2018, 219~246쪽.
- 허순우, 「〈영이록〉의 성장소설적 면모와 교육적 함의-소운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2, 323~356쪽.

ABSTRACT

“Adulting” in the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based on “Becoming an adult of a prodigal son”

- Focusing on Lee Mong-chang in the series of Ssangcheon Gi-bong

Kim, Kang-eun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becoming an adult and the meaning of becoming an adult, focusing on Lee Mong-chang’s series of Korean long novel “Ssangcheon Gi-bong”. The narrative that Lee Mong-chang controls his natural debauchery and becomes the head of the family is also the process of becoming an adult who controls his temperament and fulfills his social responsibilities. In the series of “Ssangcheon Gi-bong”, Lee Mong-chang’s ‘adult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First of all, the process of becoming the head of the family includes establishing judgment criteria and learning social roles. Lee Mong-chang avoided responsibility for all cases without imagining the consequences of his actions at first, but from the disappearance of So Wol-hye, he faces the consequences of what he has done and establishes the criteria for judgment. In the belated marriage with Jo Sang-yeom, he agonizes over the social hierarchy surrounding the family and the attitude he must take. Through the growth of the two aspects, Lee Mong-chang escapes from the prodigy and secures the quality of being the head of the family. It should be noted that Lee Mong-chang’s ‘becoming an adult’ is not completed by becoming the head of the family. In the latter part, “The Book of Generation Lee”, Lee Mong-chang seems to be the completed head of the family, but when dealing with his son Lee Baek-moon, he shows an immature and impulsive side. When dealing with a prodigy son who looks exactly like him, he is conscious of the past and obsessed with the role of the head of the family.

Lee Mong-chang’s change in the narrative of ‘being the head of the

household’ is due to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s and on the other h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reconsiders the perspective of the completed adult.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in the social relationships surrounding me serves as the basis for controlling my natural temperament and playing a social role. Of course, these experiences leave room for criticism in that they can be seen as ‘planning’ for growth from Lee Mong-chang’s perspective, but in other words, they also show how much relationship is involved in the process of adulthood. Furthermore, these experiences continue even after adulthood, and have great implications in that they create a changing adult rather than a completed adult. In other words, becoming an adult means more than just ‘getting older’ and can be said to be a process of continuing to pursue completion while incomplete.

Key Words Becoming an adult, growing up, patriarch, maturing, prodigal son

논문투고일: 2024.07.10.
심사완료일: 2024.08.06.
게재확정일: 2024.08.08.

